

## II. 主要 懸案

## 1. 韓 · 유럽 聯合(EU) 經濟 關係

- (EU 經濟 現狀) 91년 이후 지속된 景氣沈滯로부터 최근 回復勢를 보임
- (貿易 및 投資 現狀) EU경기의 好調로 한국의 對EU수출 증가세
  - 輸出 現狀: 전체 輸出 增加率에 비해 對EU 輸出 增加率은 저조함
  - 投資 現狀: 兩地域의 經濟 규모에 비해 저조하나 最近 增加勢임
- (主要 通商 現안) 일반특혜관세(GSP)의 縮小와 반덤핑 규제 強化로 輸出에 부정적인 影響을 미칠 것임
- (展望) 景氣好調로 相互 交易은 확대될 展望이나, EU는 韓國市場 開放 압력을 強化할 방침이어서 通商마찰의 여지가 있음

## (EU 經濟 現狀)

- 94년 들어 EU 景氣는 지난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, 95년도 經濟 成長率은 3% 정도로 豫想되고 있음
  - EC는 統合(68년) 이후 93년에 2번째의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였음 (첫번째는 석유파동으로 인해 75년에 마이너스 成長을 보였음)
  - 지속적으로 높은 失業率(93년 10.9%, 94년 11%)을 維持하여 왔던 EU는 향후 다소의 실업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음

## (貿易 및 投資 現狀)

## ○ 貿易 現狀

- 지난 4년간(1990~93)의 연평균 總輸出 增加率(8.15%)에 비해 對EU 평균 輸出增加率은 2.0%로 輸出이 부진한 실정이나 미국, 일본보다는 양호함
  - 93년 總輸出中 對EU 輸出比重은 11.4%로 對美(22.1%), 對日(14.1)에 劣勢임
- 最近 EU 景氣 회복으로 輸出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豫想됨
  - 94년 11월말 현재 輸出은 전년도 同期 對比 11.4%가 증가하였음
- 94년도에는 輸出보다 輸入의 빠른 증가로 貿易收支 積자가 대폭 증가함
  - 국내 景氣 好調로 소비재 등의 輸入이 급증한 반면 輸出이 부진한 때문임
  - 특히 勞動集約的인 제품 수출이 後發 開發國의 공세로 타격을 입고 있음
- 對EU 輸出 主宗商品은 섬유와 가전제품에서 최근에는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

은 高附加價值 品目으로 變化되고 있음

<韓國·EU間 年度別 輸出入 현황> (%)

		1990	1991	1992	1993	1994**
수출	증가율	19.7	9.6	-5.1	2.0	11.4
	수출비중*	13.7	13.5	12.4	11.4	10.9
수입	증가율	29.6	17.3	-3.0	6.1	28.5
	수입비중*	12.2	12.1	11.7	12.1	13.0
무역수지(백만 달러)		45.5	-15.1	-35.1	-755	-2,647

\* 전세계 수출, 수입중 EU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

\*\*94년의 수출입은 1~11월 집계임

○ 投資 現況

- 한국의 對EU 投資는 건수나 금액면에서 對일본 投資보다는 많으나,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비해 매우 적음. EU 統合에 따른 對內 輸入規制 대처를 위한 域內 企業化 전략으로 投資는 최근 增加 趨勢임
- 業種別로(93년말 현재)는 貿易과 서비스업이 전체의 62%(금액대비)로 비중이 크고, 제조업은 38%를 점하고 있음
- EU의 對韓 투자는 461건에 23억 6천만 달러로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低調함

<우리 나라의 海外 地域別 投資 現況, 1993년말 현재> (괄호안은 점유율, %)

구분	EU	북미	동남아*	일본	전세계
건수	137(5.0)	553(20.1)	1,527(55.4)	131(4.8)	2,755(100)
금액(US\$ 백만 달러)	446(8.0)	2,192(39.3)	2,014(36.1)	176(3.2)	5,578(100)

\* 동남아는 일본 제외

(主要 通商 현안)

○ 일반특혜관세(GSP)의 縮小와 반덤핑 규제 強化로 輸出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
- 94년 2월 확정된 新規 GSP制度로 예정(97년)보다 1년 앞당겨 GSP 供與가 中 단될 豫定임
  - 917개 對象 品目中 519 品目이 94년 4월부터 品目別로 GSP 마진폭이 점차 縮小되어 96년 1월부터는 全面 中斷됨
- EU는 87년 이후부터 對아시아 반덤핑 規制를 強化하기 시작하였음. 한국은 94년말 현재 14개 품목이 EU의 반덤핑 規制를 받고 있으나 向後에도 規制는

더욱 強化될 展望임

- 일본(21건), 중국(20건)에 이어 한국은 14건으로 EU의 제 3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임
- 主要 品目으로는 DRAM, 전자 레인지, VIDEO 테이프, 컬러 TV 등이 규제를 받고 있으나 자동차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

(展望)

- 景氣好調로 相互 交易은 擴大될 展望이나, EU는 相互主義를 표방하여 한국에 市場開放 壓力을 가하는 동시에 域內 産業보호를 위한 반덤핑 규제 등을 強化할 것이므로 通商마찰의 여지가 있음
  - 최근 채택된 對아시아 政策 報告書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,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시장의 開放壓力이 強化될 것임
    - 94년말 채택된 新通商政策(NCPI)은 운용여하에 따라 美 通商法 301條와 같은 威力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注目하여야 함
    - 따라서 EU의 通商정책 변화 추이를 檢討, 分析하고 EU의 域內産業 보호에 대비한 現地化 戰略 등의 對策 樹立이 시급함
  - 특히 국내의 자동차시장 開放 壓力과 EU內의 國산차 輸入規制 문제가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큼
    - 현대, 기아자동차의 EU 市場 進出에 이어, 최근 대우도 1% 市場占有率을 목표로 攻撃的인 마케팅을 시작하여 한국차의 市場擴大 牽制가 深化될 것임
    - '94년 1~9월 동안 國산차는 75,327대가 輸出(前年 同期對比 增加率은 12%, 일본차는 -7.2%)된 반면, 93년 유럽산 자동차의 國內輸入은 498대여서 한국차의 EU 市場擴大를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擴散되고 있음
  - EU의 經濟 規模와 交易量에 비하면 韓·EU間의 貿易, 投資 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상호 直接投資, 과학·기술 협력, 産業間 협력 등의 協力擴大 方案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. 兩地域間의 경제교류를 위한 상호 필요성은 크나 相互協力基盤 조성이 미진한 상태임
    - EU는 한국과 아시아의 力動的인 시장을 증시하여 經濟協力 強化를 추진하고 있으며, 한국을 중국 등 東南亞 進出을 위한 據點으로 삼고자 함
    - 반면 EU는 우리에게 유망한 輸出市場이자 중요한 資本 및 技術 도입국이 며, 향후 東歐圈 進出을 위한 교두보로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큼. 또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의 공동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음

(장 민 수)